

미완의 혁명 리더십 도쿠다 큐이치 리더십 연구

박정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미완의 혁명 리더십 도쿠다 큐이치 리더십 연구

박정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 서론

우리는 지금 일본의 새로운 정치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는 사실 일본에 대한 관심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갈등에서 파생되고 있다. 한일관계가, 나아가 한반도와 일본 간의 관계가 구조적 재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당사자인 한국(인)에 비친 일본은 위기에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소진한 상태이다. 이것이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갈등의 진원이 일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정치에는 이 위기를 관리할 리더십이 부상하지 않고 있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갱신도 지체되고 있다.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일본정치 자체가 전환기, 또는 이행기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이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일본정치의 새로운 리더십은 카리즈마 넘치는 정치인이기 쉽다. 일본 리더십을 논함에 있어, 본고가 도쿠다를 큐이치(徳田球一)에 주목하는 일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도쿠다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던 전환의 시대에 등장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에는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역사화 되어 버린 혁신운동의 대안과 비전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본고는 문제관심이 여기에 있다.

전후 일본 정치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카리즈마의 부재이다. 그 만큼 도쿠다는 우리에게 낯선 정치 지도자이다. 전후 보수정치의 비전과 대척되는 일본혁명과 혁신정치의 문맥에 도쿠다가 있다. 그에게는 요시다 독트린에 근거했던 전후 일본 정치 리더십에서 보기 힘든 강력한 대중호소력과 조직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요시다 독트린과 전후 일본보수정치와는 정반대로, 도쿠다의 일본공산당과 혁신운동은 격렬히 부상한 뒤 단기간에 역사 속에 사장되어 버렸다. 그런 도쿠다에게 그 간 ‘혁명 리더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왔다. 하지만 도쿠다의 리더십에는 ‘혁명’으로 일괄할 수 없는 다양한 측면들을 담고 있다. 도쿠다의 정치 이념과 그 행태에는 반제국주의의 기치 하에 전개된 국제 공산주의 운동, 즉 인터내셔널리즘과 그의 망명활동지인 북경에서 전개된 동아시아 공산주의운동, 그리고 일본 토착공산주의 문제와 오키나와로 대표되는 마이너리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의 심층에는 ‘냉전’과 ‘민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은 도쿠다 리더십의 현재적 함의를 논하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혁명 리더십’으로서의 도쿠다의 카리즈마에 대한 평가를 재론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패전 직후부터 도쿠다의 사망에 이르는 시기(1945-1953)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점령기 합법 일본공산당 재건을 둘러싼 도쿠다의 구상이 명료하게 드러나며, 일본 공산당의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에



있어 도쿠다의 리더십이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대일강화 그리고 일본공산당의 비합법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리더십이 쇠퇴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도쿠다 사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유보되고 있다. 그의 출신지인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카쥬마루 공원에는 공적을 그의 공적을 기념해 나고시에 의해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다. 기념비에는 “為人民無期待獻身”(인민을 위해 무조건 헌신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 기념비는 1998년에 공비에 의해 건립되었지만, 당시 자민당, 공명당, 사회당(당시) 등 모든 정당이 찬성했지만, 일본공산당만이 태도를 달리했었다. 기념비뿐만이 아니라 도쿠다의 관계자로는 일본공산당이 폐기 처분해, 현재도 그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뒤늦게 발간된 《도쿠다 규이치 전집》 또한 일본공산당사의 적자. 파벌의 잔류로서 평가되고 있다.¹ 본고가 다루고 있는 도쿠다의 리더십과 그의 일본공산당 운동에 대한 기술과 평가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경계인'으로 '타고난 혁명가'

도쿠다는 1894년 9월 12일 오키나와현 나고시에서 태어났다. 큐이치(球一)라는 이름은 오키나와의 다른 이름인 류큐(琉球) 제1의 인물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유년기의 도쿠다는 작은 체구에 머리와 눈만 두드러지게 큰 반면, 팔과 다리가 극도로 얇고도 짧은 약골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 도쿠다 사헤이(徳田佐平)는 나고시에 있던 오키나와 현 구니가미 군청의 서기였다. 그는 가고시마 현 토족(土族)출신으로, 토착 오키나와인 보다 우수한 인종이라고 믿고 있었다. 도쿠다의 자전에 의하면, 그의 조부는 막부 말기 경 가고시마 현 내에서 상선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회선 사업을 했었다. 어머니 또한 가고시마현의 거대 상인과 오키나와 처 사이에서 출생했다.²

오키나와에 있어 이들 가고시마인은 인도에 있어서 영국인, 전전의 만주에 있어 일본인, 그리고 전후의 일본에 있어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사회교사회를 가지고 있었다. 도쿠다 일가의 경우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가고시마인 중에서도 선별된 계층에 속해 있었다. 즉 젊은 도쿠다에게는 내지인 중에서도 상당한 신분 가진 계통의 자식으로서의 자부심과, 다른 한편으로서는 오키나와인으로서의 피가 농후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본토에 대한 열등감과 저항의식이 동시에 잠재해 있었을 것이다(牧港篤三 1980, 125-136). 경계인으로서의 이중적 아이덴티티였다.

도쿠다의 성장과정에는 이러한 내면이 선명하게 표출되어 있다. 두뇌가 명석했던 도쿠다는 구제(旧制)오키나와 현립 제1중학교(현 오키나와 현립 수리고등학교) 졸업 후, 구제 제7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교관의 오키나와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 퇴학하고, 고학으로 니혼대학(日本大学) 야간부를 졸업해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된 후, 1920년에 사회주의동맹에 참가했고, 1921년에는 소련을 방문한 뒤 그 다음해에 비합법 일본공산당(제1차 공산당) 결성을 주도하고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도쿠다의 소련방문은 1925년과 1927년에도 지속되었고, 그 사이 상해에서 일본공산당 재건을 도모했었다. 이 경험은 도쿠다에게 국제 공산주의운동, 특히 코민테른에 매우 충실한 젊은 공산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만들어 갔다.

그 뒤 도쿠다의 일대기는 일본 공산주의 운동과 일치한다. 본격적인 정치활동은 1928년 제1회 보통선거에서 노농농민당에서 출마(후쿠오카 제3구)한 것이었지만, 낙선하였다. 그 직후인 2월 26일에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체포되었고, 곧이어 제2차 공산당 사건(3.15 사건)이 발생했다. 도쿠다의 긴 옥중생활의



시작이었다. 석방직전까지 후추에 소재한 예방구금소에서 도쿠다는 비전향자들 사이에서 아버지라는 의미의 ‘오야지’(オヤジ)로 불리었다. 당시 도쿠다는 52세로 최고 연장자였다. ‘오야지’라는 말은 단지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아니었다. 약관 35세에 옥중 생활을 시작해 18년 간 비전향 장기수라는 상징적 존재이자 일본공산당 건설의 주역이었던 그는, 전후에 합법공산당이 결성되기 전에 이미 옥 중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야지라는 호칭은 이른바 ‘수령’을 의미하는 경칭이기도 했다(西野辰吉 1978, 123).

III. 인민정부 수립을 향한 비전과 실천

1. ‘인민에 대한 맹세’와 ‘사랑받는 공산당’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발표되자, 도쿠다는 감옥 내에서 세포조직(프랙션)의 결성을 서둘렀다. 도쿠다는 이미 감방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출옥 후의 활동방침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1932년 볼셰비키 혁명테제’(이하 32년 테제)의 전문과 인민전선전술을 학습했다. 특히 인민전선전술은 코민테른이 일본 국내에 보낸 ‘일본 공산주의자 앞으로 보낸 편지’가 교재가 되었고, 이를 전달해 준 것은 ‘전향자’들이었다. 하지만 도쿠다가 체계적으로 인민전선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강령적 내용 또한 소비에트 동맹의 공산당 규약을 주로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다(西野辰吉 1978, 124-125). 도쿠다의 새로운 일본 공산주의 운동 구상은 출옥하기 직전에 구체화되었다. “인민에 맹세한다”(이하 맹세)라는 문건이 그것이다. 이 문건은 도쿠다 리더십의 이념적 지향을 담은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맹세”는 ‘연합군군대의 일본진주에 의해 일본의 민주주의혁명의 단초가 열린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점령군인 연합군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와 그 정책에 대한 도쿠다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공산당의 노선과 투쟁의 결정적인 명운을 드리게 된다. “맹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천황제를 타도하고, 인민의 총의에 기초해 인민공화정부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명시한 제3항이다. 그 외 제4항에서는 ‘군국주의와 경찰정치의 일소’를 ‘일본 민족의 해방과 세계평화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구체적인 임무로서 ‘무상몰수와 그 농민으로의 무상분배, 노조의 자유, 단체 교섭권의 확립, 실업보험, 8시간 노동제를 포함한 노동자, 근로자의 생활개선, 신앙의 자유, 군별관료와 독점자본을 위한 통제의 폐지와 노동자, 농민근로자 외 탄압받아온 인민을 위한 통제, 18세 이상의 남녀의 선거권에 의한 국민의회 건설’ 등을 들고 있었다. “맹세”는 이러한 ‘목표와 임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을 만들고, 인민공화정부도 이러한 기반 위에 수립될 것’이라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황제 권력과 타협해 발전해 온 가짜 자유주의, 가짜 사회주의인 천황제 지지자들의 지도자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アカハタ〉 1945/10/10).

도쿠다의 석방은 후추 형무소를 방문한 저널리스트 로베르 기란 등 프랑스인 저널리스트들의 제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기란 일행에게 발견된 일본공산당원들 중에는 도쿠다 외에,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미타무라 시로(三田村四郎), 니시자와 다카지(西沢隆二), 구로키 시게노리(黒木重徳), 야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 마츠모토 가즈미(松本一三), 그리고 재일조선인 이강훈, 김천해 등이었다. 1945년 10월 10일 오전 10시, 후추 형무소의 철문 앞에는 8백여 명이 운집했다. 이들에게는 “맹세”가 배포되었고,



모인 사람들은 이를 매우 감격스럽게 받아 들였다고 한다(杉森久英 1964, 205). 뒤이어 도쿠다 일행이 GHQ앞에서 연합군 만세를 외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³ 곧이어 자립회라는 도쿄 근교 고쿠분지의 한 수인보호시설에서 합법공산당의 활동은 시작되었고, 여기서 도쿠다와 시가는 중앙기관지 <아카하타> 재창간 제1호를 10월 20일에 발간했다. 이 지면에 “맹세”가 ‘일본공산당 출옥동지 도쿠다 큐이치, 시가 요시오 외 일동’의 연명으로 발표됨에 따라 도쿠다의 초기 구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アカハタ> 1945/10/10).

GHQ의 초기 점령정책과 도쿠다의 “맹세”를 대조해 보면, 도쿠다의 그 것에 경제조직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을 빼면, 거의 일치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⁴ 이는 32년 테제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론에 머물러 있던 도쿠다에게 있어 당연한 귀결이었다. 사회당과 비교해 볼 때도, 맥아더 만세를 외친 도쿠다는 당시 일본 국민 속에서 많지 않은 점령군의 심리적 동반자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 속에 공산당의 존재감이 ‘초원을 불태워버릴 정도의 기세’를 가지게 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없었던 데에는 천황제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이었다(杉森久英 1964, 213; 西野辰吉 1978, 142). 공산주의자들 대부분이 천황제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황에 대한 증오 또는 분노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 거의 편집증적인 감정까지 올라온 상태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름 아닌 도쿠다였다. 하지만 천황 또는 황실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오히려 친근감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대부분의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것이었다.

도쿠다는 오키나와 출신자라는 특별한 입장에서, 처음에는 먼저 오키나와에 있어 권력자인 가고시마인들을 증오했고, 그 연장에서 본토에 있는 모든 권력자와 권력기구를 증오했다. 그 정점에도 다름 아닌 천황이 있었다. 따라서 천황제에 대한 부정은 오키나와의 독립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 1946년 2월, 일본공산당 제5회 대회는 일본 본토 주제 오키나와 현민 조직인 오키나와인 연맹의 전국대회에 즈음해, “오키나와민족의 독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키나와인은 “일본의 천황제 제국주의의 착취와 탄압을 받아”왔던 ‘소수민족’이며, “다년간의 염원이었던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는 길에 서게 된 것”에 축의를 표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1947년 12월의 제6회 대회에서도 오키나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항목이 행동강령 안에 들어갔다. 이는 도쿠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일본공산당의 당세확장에 있어 현저한 장애요인이었다. 오키나와를 식민지로서도 또는 속령으로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그저 일본의 일부로만 배워오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왔던 대다수의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불만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던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이별통지를 송부한 폭군과 같은 행위”였다(杉森久英 1964, 215). 현실적으로도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경우 정치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공백상태였다.

한편, 도쿠다는 1945년 12월의 일본공산당 첫 재건대회(제4회 대회)에서 서기장이 되었다.⁵ 합법공산당 서기국 구성에서 도쿠다의 측근 및 후추 형무소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은 노사카 산조(野坂参三)였다. 노사카는 일본 공산주의운동에서 도쿠다의 권위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도쿠다는 자신이 그 토록 충실했던 코민테른은 해체되었지만, 그 심리 속에는 노사카가 그 영향 속에 있는 존재였다. 그는 중국 연안을 거점으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문맥 속에 줄곧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노사카의 귀국뉴스는 1946년 1월에 들려왔다. 그는 미군 점령 하에 있던 조선의 경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월 12일 인양선으로 하카타 항에 도착했다.⁶ 당시 도쿠다는 노사카가 외국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지령을 가지고 돌아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⁷ 귀국 후 노사카는 도쿠다 등 당 수뇌부와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의외의 것이었다.

이 성명에서 노사카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공산당”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리고 천황제와 천황가의 존속문제를 구별하고, 민주전선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담겨



있었다. 노사카는 1945년 4월, 중국공산당 제7회 대회에서 ‘민주적 일본의 건설’이라는 보고를 했었다. 정치체제로서의 천황제는 폐지하지만, 황실을 존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인민투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도쿠다의 일본공산당 지도부에 노사카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었다. 1월 26일 열린 노사카의 귀국환영국민대회에서는 “영웅 돌아오다”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는 가운데, 열광하는 군중이 회장을 가득 메웠다. 도쿄 역에 넘쳐나는 환영인파는 전쟁 중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분위기에 필적했다. 이러한 지지를 배경으로 노사카는 천황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더불어 통일전선 전술, 즉 민주인민전선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전범추구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자유주의자, 소극적 반군분자들까지 폭넓게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西野辰吉 1978, 135; 杉森久英 1964, 217). 하지만 이 주장은 도쿠다의 구상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2. 2.1 총파업의 강행과 좌절

노사카가 젊음의 신사와 같은 품모였던 반면, 도쿠다의 활동은 그야말로 중형무진이었다. 마치 장기간 옥중생활 동안 축적해 온 정력을 한 번에 분출하듯, 도쿠다의 리더십은 마침 불을 뿜는 듯 했다. 특히 일본공산당의 의회진출과 당세확장은 경이로운 것이었다. 1946년 4월, 전후 첫 중의원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당시, 선거운동 당시, 가두의 선두에서 당원들의 기마에 올라 기대하라 수상의 관저 안까지 입성한 일화는 도쿠다의 이러한 행동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西野辰吉 1978, 146). 의회에 있어서 도쿠다의 정부공세도 물론 통렬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도쿠다는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요시다 시게루는, 사회당과 일본공산당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할 정도의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유독 도쿠다에 대해서는 “뒤끝 없는 화끈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적이었지만, 유쾌한 인물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다(吉田茂 1998, 355). 제1차 요시다 내각에서 대장상을 지낸 이시바시 단잔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바 있다. “재미있는 친구였지. 매우 솔직한 인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石橋湛山 1994, 198).

도쿠다가 보수정치인들에게까지 호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의회의 장에서 매우 격렬한 공세를 하면서도, 정치인의 사적인 스캔들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현실정치인으로서의 대범함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국회에서의 연설이 너무 길다고 야유가 터져 나올 때에는 “그럼 도큐(특급)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되받아 칠정도로 미워할 수 없는 재기와 유모도 겸비하고 있었다.⁸ ‘동란의 시대의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도쿠다의 이러한 퍼스널리티는 대중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에도 발휘되었다. 당시 일본공산당은 의회 밖에서 노동자 운동 진영 내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한편 식량데모, 식량 메이데이 등을 통해 광범위한 민중투쟁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 식량데모는 전년도부터 비축된 식량이 소진되는 시기로부터 가을 수확기까지에 집중된 투쟁으로 도쿠다의 발상에 의해 조직된 것이었다(西野辰吉 1978, 143). 그리고 가두에서의 도쿠다의 호소는 곧 중의원선거의 준비와 당세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쿠다의 리더십에 의해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고양되고, 노사카의 “사랑받는 공산당”에서 표출된 천황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민주전선의 구상이 더해지면서, 점차 통일전선의 기운이 점차 확대되는 듯 했다. 하지만 통일전선의 첫 파트너가 돼야 할 사회당이 돌연 거부의를 보였다. 일본공산당이 노동조합 연합체인 ‘산별회의’(全日本産別労働組合会議)를 결성한다고 선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당시에는 노동자 총동맹 외에 중립계열의 노동조합회의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외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국철과 전기산업 등의 대규모 노동조합이 병존하고 있었다. 일본공산당은 이들과의 연대 대신에, 독자적인 노동운동의 재편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감이 깃들여 있었다. 실제로 1946년 8월에 결성된 산별회의



에는 155만 명이 결집해 85만 명의 총동맹을 압도하고 있었다(西野辰吉 1978, 148). 하지만, 산별회의의 결성 후, 통일전선의 무드는 사라져 갔다. 이러한 강행적인 행보의 이면에는 노사카와 상반되는 도쿠다만의 통일전선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식량투쟁의 승리와 산별노조 결성의 성공은 곧 거대 정치투쟁 시도로 이어졌다. 요요기 공산당 본부에서 1947년 2월 1일을 목표일로, 산별회의와 총동맹이 연대하고, 국가 공무원, 공공기업체 노동조합도 총동맹해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2.1 총파업). 동원될 조합원 수만 해도 2백 6십만을 넘는 대 규모이다. 게다가 내각을 퇴진시키고, ‘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급진적인 목표설정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어서, 수상에 마츠모토 지이치로(松本治一郎), 내상에 도쿠다, 외상에 노사카, 농상에 이토 리츠(伊藤律)등, 인민정부 수립 후 내각구성까지 미리 그리고 있었다(杉森久英 1964, 223). 그런데, 여기서 마츠모토는 사회당 소속이었다. 일종의 사공(社共) 연립정권 구상으로, 사회당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일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사회당과의 통일전선을 일본 공산당 스스로 거부한 상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현실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도쿠다는 왜 이러한 급진적이면서도 모순적인 결정을 했을까? 과연 도쿠다 개인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을까? 여기서 도쿠다 공산당의 지도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쿠다는 당 중앙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했지만, 상시운동을 지휘하는 서기국과 그 산하의 기관원은 자신의 직계인물로 채워졌다. 도쿠다가 가장 신뢰한 인물은 옥중에서 연락책 역할을 주도했던 구로키 시게노리(黒木重徳)였지만, 중의원 선거 중에 사망했고, 이후 하카마타 사토미(袴田里見)를 중용했지만 곧 경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에 부상한 인물이, 인민정부 내각 구상에서 노사카와 나란히 거론된 이토였다. 이토는 전시 중 검거 당시 수 차례 전향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미야마 시게오(神山茂夫) 슬하에서 반 도쿠다 노선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토가 1947년 제5회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승진하고, 그 해 말에 열린 제6회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원이 되는 등 급상승한 것이다. 도쿠다는 이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정치의식 낮은 것으로 치부할 정도로 지나친 편애를 보였다 이 때문에 도쿠다만이 아니라 시가, 미야모토 등의 핵심간부들도 이토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이지 불안해 할 정도였다고 한다(杉森久英 1964, 226-230).

도쿠다가 2.1 총파업이라는 과격한 정치기획에 낙관론을 가지게 된 것은, 이즈음 GHQ를 출입하던 이토의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토는 미군이 이 총파업에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도쿠다와 일본공산당 지도부에 전달했었다.⁹ 하지만 총파업 결행 직전인 1947년 1월 31일 GHQ로부터 전면 금지령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도쿠다와 일본공산당의 총동원 계획은 어이없이 무산되고 만다. 여기서 문제는 도쿠다의 정보가 가지는 신뢰성이 아니라, 측근 1인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결정적인 운동방침을 좌우하는 도쿠다 일본공산당 지도부의 취약성이다. 당 재건에서 2.1 총파업의 단행에 이르기까지, ‘초야를 뒤엎을 정도’의 왕성한 대중투쟁을 조직해온 도쿠다였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논리적인 정의파 보다 수완 있는 음모가, 그리고 실무능력에 뛰어난 자였다. 이토의 정치적 상승은 그 자신의 정치력이기 보다, 도쿠다 리더십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도쿠다에게는 후일 한번 사람을 신뢰하면 그 결점까지도 묻어두는 식의 동양식 봉건적 지도자 또는 ‘오야붕’의 이미지가 부가되었지만, 사실 측근에 의존하는 독재적인 카리즈마는 혁명 리더십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일본은 아직 혁명적인 정세가 도래한 상태가 아니었다.

3. ‘9월 혁명’의 꿈

일본공산당의 2.1 총파업 시도를 계기로, GHQ의 노동정책은 강경책 일변도로 나가기 시작했다. 도쿠다



는 직접 2.1 총파업 금지방송을 하라는 맥아더 총사령관의 명령을 전면 수용하는 기민한 대응 보였지만, 실패의 여파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1947년 말에는 당내에서도 산별회의사무국 세포가 2.1 총파업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당 정치국 대립을 거듭한 뒤 집단으로 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노동조합 내에서는 일본공산당의 지도에 저항하는 ‘민주화동맹그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12월 즈음에는 관공청 관계의 국철, 전국체신조합, 교직원조합과 민간산업의 총동맹, 사철총련 등을 포함한 새로운 연합체인 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총평) 결성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반면 산별운동이 극도로 약체화됨에 따라 노동운동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영향력은 급격히 하락했다(杉森久英 1964, 225). 결국 의석수 4명의 군소전당으로 전락한 일본공산당은 내각타도로 돌진하는 방식에서 지역인민투쟁으로 전술을 전환 함으로서 GHQ와의 정면 투쟁을 회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949년 봄부터 불현듯, ‘인민혁명’의 가능성이 유령처럼 재등장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동년 1월 24일 제3회 중의원의원 총선거 선거 개표 뉴스였다. 가타야마 전 수상 및 그 외 각료를 거친 거물들마저 낙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당의 의속도 급감한 것이다. 전후 2회에 걸친 총선에서 사회당은 제1당(143석)이 되었고, 이후 보수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해 가타야마, 아시다 등의 2대에 걸친 내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사회당이 3분의 1의 규모로 축소되는 참패를 한 것이다. 반면, 일본공산당은 의석이 4석에서 35석으로 10배 가까이 늘어 그야말로 대약진을 보였다.¹⁰ 선거 직후 인 2월에 초 일본공산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외적으로 혁명의 객관적, 주관적 조건이 성숙”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인민정권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으며, 정권의 문제는 바로 지금 코앞의 문제라는 결론이었다(徳田球一 1986b, 273-284.). 이른바 ‘9월 혁명설’의 등장이다.

“신국회대책에 관한보고”에서 혁명의 ‘객관적 조건’, 즉 국제정세로서 거론 한 것은 “중국과 동구에서 사회주의세력의 확장 및 정권탈취”였다. 실제로 이즈음 중국공산당 세력이 중국대륙 전체를 거의 수중에 장악한 상태로 국민정부의 타도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반도에도 북한 정권 등장 이후, 남조선까지 혁명의 기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같은 시기 일본공산당의 약진 또한 이러한 혁명정세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대규모 노동공세를 취하게 되면 내각의 타도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이때 이후, 일본공산당은 도쿠다의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에 도취되어, 마치 혁명이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노선과 계획을 내 놓기 시작했다(杉森久英 1964, 233-234). 이러한 분위기를 선두에서 조성하고 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도쿠다 자신이었다.

도쿠다는 1949년 6월 중앙위원회의 보고에서 ‘계급적 결전’을 거론하면서 “인민의 요구가 일상투쟁에서 벗어나 평상시와는 다른 속도로 요시다 내각을 타도하고, 민주인민정권의 수립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민주자유당을 9월까지 쓰러트려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조성된 정세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西野辰吉 1978, 156). 도쿠다가 이처럼 손쉽게 ‘혁명’의 분위기에 쉽게 도취한 것은 타고난 낙관론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선호했던 감성적 카리스마의 소유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도쿠다의 행동은 현실 가능성 보다 일종의 분위기 쇄신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혁명적 정세’라는 것도 전 세계 공산당 운동사에 언제나 함께하던 수사였다. 하지만 1945년에 출옥 당시 발표한 “맹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듯이, 도쿠다에게 있어 ‘인민정부’는 반드시 성취하고자 했던 ‘현실가능성’을 염두에 둔 꿈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9월이 되어도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성립된 10월이 되어도 요시다 내각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냉전의 진전이 미국의 대일정책, 특히 GHQ의 점령정책의 개혁성을 후퇴시키고 있었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움직임 또한 억압되었기 시작하고 있었다. 1949년에 전개된 총선거의 극적인 결과는 이러한 정세 속에서 연립내각이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려 있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다. 가타야마, 아시다 연립내각의 부패에 실망한 국민이 사회당을 버림으로써 일본공산당의 의석이 크



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연립내각에 가담하지 않고 있던 민주자유당이 단독과반을 획득해, 사실상 혁신세력은 득표도 의석도 모두 줄어든 셈이었다. 도쿠다가 꿈꾸던 1949년 9월은, 결코 혁명과 인민정부를 운운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IV. 냉전과 분파에 억눌린 카리즈마

1. 코민포름 비판에 대한 “소감”

도쿠다가 ‘9월 혁명’을 공론화 시킬 즈음, GHQ는 이른바 ‘단체 규정령’을 일본공산당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당원 명부를 행정기관에 등록시키라는 것이었다. 도쿠다는 이 명령에도 일단 순응했다. 행정 및 기업의 개혁을 위한 조치로만 이해한 것이었다. 도쿠다의 공산당이 2.1총파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9월 혁명설’을 거론할 수 있었던 데에는 GHQ의 점령정책에 대한 평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GHQ는 여전히 군국주의체제를 위로부터 개혁하고자 하고 있고, 이는 사회주의 혁명과 인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던 일본공산당의 노선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 규정령’ 또한 GHQ의 점령정책의 냉전화 즉 ‘역코스’의 일환이었다. 후술하겠지만, 등록된 당원명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해고가 강행되는 ‘레드퍼지’의 공식자료가 되어버린다(西野辰吉 1978, 158). 이에 대한 경고는 1950년 벽두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진영으로부터 제기되었다.

1950년 1월 초순, 코민포름 기관지에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소식이 각 일간지에서 모스크바 방송을 인용해 보도되었다. “점령 하에서도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이 가능”하다는 노사카의 ‘평화혁명론’에 대한 정면 비판이 그 내용이었다. 즉 GHQ가 “일본의 비무장화와 동시에 일본인민을 전체주의적 정책에서 해방시키고, 일본을 민주화”시킬 것이며 “평화혁명을 촉진”한다는 논리는 환상에 불과하며, 이러한 환상은 곧 “제국주의자가 일본을 식민지적 부가물로, 그리고 동양에 있어 새로운 전쟁의 발화점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논리였다(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編 1988, 130). 도쿠다는 급히 회의를 소집해, 1월 9일자 <아카하타>에 정치국과 통제위원회의 명의로 “코민포름의 비판을 부르주아적 신문의 허위보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실었다(<アカハタ> 1950/01/09). 하지만, 곧이어 주일 소비에트 대표부의 신문에도 코민포름 기관지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의한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명백한 사실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공산당은 1950년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토가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에 관한 소감이라는 제목의 공식입장(이하 소감)을 표명했다. “소감”에서는 노사카의 평화혁명론이 “불충분하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결점들은 이미 실천 활동을 통해 극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일본에 있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은 (중략) 각종 표현들이 노예의 언어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코민포름 비판은 “우리 인민과 우리 당에 중대한 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노사카의 이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반하는 듯 한 논평의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編 1988, 131). 이웃집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소감”은 일본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감”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당시 정치국은 도쿠다, 노사카, 이토, 시다 시게오(志田重



男), 곤노 요지로(紺野与次郎), 하세가와 히로시(長谷川浩), 시가 요시오, 미야모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시가와 미야모토가 코민포름 비판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고, 이 때문에 격론이 벌어졌다. 게다가 1월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소감”에 대한 재 반박문을 게재함으로써 시가와 미야모토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따라 도쿠다는 다음날 18일 당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통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미야모토 겐지는 큐슈지방위원회 의장으로 좌천시키는 한편, 미야모토에 동조했던 가스가 쇼지로(春日庄次郎)는 노동조합부장을 연임한 상태에서 휴양명령이 내려졌다. 신인 통제위원회장은 측근인 시이노 에츠로(椎野悦郎)였다. 통제위원회는 당내 경찰 사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시이노가 지휘하게 된 통제위원회는 이때부터 정치국의 “소감”에 이견을 표명한 중앙위원에 대해 사찰활동을 개시였다(杉森久英 1964, 240; 西野辰吉 1978, 173-174).

코민포름은 노사가 산조의 평화혁명론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띄고 있었지만, 사실상 GHQ의 점령정책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일본공산당에 비판적으로 제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쿠다의 반응은 ‘격노’(激怒) 그 자체였다. 당 본부의 사무원들은 도쿠다 근처에 재떨이나 문구 등 던져버릴 만한 물건들을 몰래 정리할 정도였다고 한다. 인민일보의 재비판이 있을 때에도 도쿠다는 분노하면서 “북경 근처의 시골신문이 잘난 척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가 이처럼 과민하게 반응한 데에는 과거 코민포름에 불려간 뒤, 당 중앙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다(杉森久英 1964, 237-239). 오랜 옥중생활로 인한 공산주의 사상 이론가로서의 권위의 결핍이 콤플렉스로 작용해 분노의 감정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아가 도쿠다는 코민포름 비판을 이론과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당연히 도쿠다의 노여움은 곧장 미야모토 등 코민포름 비판을 수용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향해졌다. 자신의 리더십 또는 지도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 정도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성을 잃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신은 물론 육체까지 피폐해 지고 있었다. 1950년 3월경, 도쿠다는 결국 병상에 들어간다. 병상에서도, 가메야마 고조(亀山幸三)가 시가와 미야모토와 협력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도쿠다는 이를 면전에서 찢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이미 지도와 당무가 어려운 지경에 까지 진행되었다. 도쿠다는 결국 당 운영을 당분간 이토와 시다 시게오에게 맡기게 된다(杉森久英 1964, 241). 바로 이 기간 동안 반대파들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50년 4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시가와 미야모토 외에, 중앙위원이었던 가메야마, 하카마타, 가스가, 구라하라 등이 의견을 같이해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감”을 옹호하던 도쿠다와 정치국 주류(소감파)에 대별되어 국제파로 불리었다. 그리고 분파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되었다. 국제파는 총회에서 이루어진 일반보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정치국에서 감정과 격한 태도에 이해합의제의 원칙이 무시되는 경향을 곧장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당의 노선을 둘러싼 이견대립이, 도쿠다 자신의 과민한 반응과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파문제는 결국 소감파를 대표해 코민포름 비판을 수용하는 내용의 테제 안을 도쿠다가 보고하고, 국제파의 시가가 사죄하는 방식으로 봉합되었다(西野辰吉 1978, 176).

중앙위원회에서 코민포름의 비판이 수용되었을 때, 도쿠다는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과 직접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당의 비합법화와 군사체제화의 필연성을 예측한 것이었다. 이 예측은 곧이어 현실로 나타났다. 1950년 6월 6일, 맥아더는 레드퍼지를 단행했다. 그리고 일본공산당의 중앙위원 24명의 추방처분이 있던 바로 다음날, 도쿠다 서기장 이하 9명의 중앙위원은 지하로 잠적했고, 통제위원회가 중심이 된 임시중앙지도부를 발표했다. 이는 당의 정규절차를 밟지 않는 단독 행동이었고, 무엇보다 시가와 미야모토 등 국제파가 배제된 조치였다. 당의 주류 소감파와 국제파는 분열



했고, 드디어 내분이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7월 15일, 도쿠다 외 9명의 간부에게 단체규정명령위반으로 체포장이 발령되었다. 이즈음, 도쿠다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갔다(杉森久英 1964, 241-245).

2. 북경기관(孫機關)과 ‘51년 강령’

GHQ에 의해 일본공산당에 대한 레드퍼지와 도쿠다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진영의 새로운 전술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도쿠다가 일본을 탈출한 것은 이즈음이었다. 1950년 9월 10일, 길게 수업을 기르고 머리에는 가발을 쓴 채 일본을 탈출한 도쿠다는 잠시 중국에 체재한 후 다음 해 여름 모스크바로 갔었다.¹¹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은 도쿠다에게 일본공산당의 평화혁명론을 대신할 새로운 행동강령을 작성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전쟁에 대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체화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강화조약을 앞두고 있었다. 대일강화에 즈음해 소련은 일본공산당을 통해 대일개입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시급했던 것이다(和田春樹 1996, 324-325).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도쿠다 등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제국주의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농업혁명이 일체화된 반제 반봉건 혁명이었고, 그 방식은 무력을 불사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로부터 전해진 도쿠다의 지령이 일본공산당의 국내 지하지도부에 전달된 것은 된 것은 1951년 8월경이었다. 뒤이어 9월 8일 대일강화 및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자, 10월 16-17일 일본공산당 제 5 회 전국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민족해방, 민주혁명’신강령의 정식채택이 이루어졌다. 반미무장투쟁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51년 강령’이다(日本共産党東京都委員会教育委員会 195, 27-20). 신강령이 결정된 후, 일본공산당 지하지도부는 당 조직의 군사체제화를 확립했다. 그리고 ‘산촌 공작대’(山村工作隊)를 조직해 농촌지역에서의 반봉건 투쟁을 실행에 옮기는 한편, 1952년 ‘피의 메이데이’ 등, 가두에서 화염병 투쟁과 무력시위를 전개해 갔다(西野辰吉 1978, 192).

북경으로 돌아온 도쿠다는 서단의 어느 호수 근처의 청조시대의 오래된 저택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했다. 도쿠다는 손(孫)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고, 그가 조직한 북경 지도부, 즉 ‘손기관’에는 모스크바에서 신강령 작업을 함께했던 노사카와 더불어 일본에서 새롭게 사무국장으로서 파견된 이토가 가세했다.¹² 손기관은 ‘자유일본방송’과 코민포름 기관지를 통해 일본 국내 지도부에 지령을 내렸다. 그 일환으로서, 일본 국내에서 군사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52년 2월, “일본공산당 신강령의 기초”라는 도쿠다의 논문이 코민포름 기관지에 발표되었다. 신강령이 스탈린의 민족해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해설이 있었지만, 내용의 상당부분이 이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경에서 도쿠다의 이토에 대한 편애는 심해지고 있었고, 국제파와의 타협을 주장하는 노사카, 니시자와의 대립도 표면화 되고 있었다(西野辰吉 1978, 193-194). 북경에서 도쿠다의 리더십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쿠다의 리더십의 약화를 가속화시킨 것은 지병의 악화였다. 1952년 7월 15일 손기관은 당 창건 30주년을 기념해 축하회를 열었다. 당시 도쿠다는 고향 오키나와의 민요를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도쿠다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이미 병상생활 속에 있었다. 이때에 발표된 그의 논문 ‘일본공산당 30주년에 즈음해’는 일본 국내 지하지도부에 보내진 사실상 마지막 지령이었다. 논문은 강화조약 체결 후 예정된 첫 중의원 선거에 즈음해 전술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즉, 국내 운동이 파업과 데모에 몰두해 선거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었다(徳田球一 1986a, 380-399). 이 논문이 발표된 후 가두에서 화염병이 사라지는 구체적인 행동변화가 있었지만, 10월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의 의석은 ‘제로’로 전락했다. 더불어 과거 1백 70만의 조직력을 과시하던 산별회의는 3만 여명의 군소세력이 되어버렸다. 도쿠다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도쿠다는 다음해인 1953년부터 병원에 입원했고, 곧 의식불명이 되었다. 도쿠다와 이토에 대한 당내 비판공세가 본격화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것은 도쿠다의 사위인 니시자와였다(西野辰吉 1978, 212). 도쿠다는 가부장적인 독재자로, 이토는 미국의 스파이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9월 21일, 일본공산당은 이토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도쿠다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1953년 10월 14일 오후 5시, 도쿠다는 북경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도쿠다는 59세였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에게는 이토의 숙청 외에 스탈린의 사망(1953년 3월) 소식도 들려왔을 것이다. 도쿠다의 사망은 2년 동안 엄중히 비밀리에 부쳐졌고, 도쿠다의 공산당사도 지워졌다.

3. 도쿠다와 ‘조선’

도쿠다 사망 다음해인 1954년부터 손기관의 간부들은 속속 귀국했다. 그리고 1955년 1월 1일자 〈아카하타〉는 “일체의 극좌적 모험주의에서 확실히 손을 뗄 것임을, 여기서 솔직한 자기비판과 더불어, 국민대중 앞에 분명히 공표”하였다(〈アカハタ〉 1955/01/01). 51년 강령의 전면폐기를 사전 공지한 것이다. 도쿠다의 사망은 〈아카하타〉 1955년 7월 30일자에 일본공산당 제6회 전국협회의 기사와 더불어 국내에 발표되었다(〈アカハタ〉 1955/07/30; 徳田球一 1986c, 396-397). 도쿠다의 추모대회는 일본 국내에서 보다 북경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약 3만의 인파가 참여했으며, 모택동의 친필 추모문구가 쓰인 횡단막(橫斷幕)이 보내져 왔다. 도쿠다의 추모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반응이었다.

1955년 8월 10일자 〈노동신문〉에 도쿠다의 사망소식에 대한 장문의 논설이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은 그의 유해가 일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부터 추모식에 이르는 상세한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¹³ 여기서 도쿠다는 “공산당의 탁월한 지도자”로 칭송되고 있었다. 특별히 51년 강령에 대해 언급하면서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혁명에 대한 스탈린적 명제에 립각하여 일본 혁명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강령으로 인해 ‘일본인민’은 “미국 점령구군과 일본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의 대열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었다(〈노동신문〉 1955/08/10). 도쿠다의 리더십과 51년 강령에 대한 평가가 일본공산당의 그 것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¹⁴ 51년 강령에 대한 북한의 평가가 적극적이었던 것은, 그 것이 ‘조선해방전쟁’의 후방지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공산주의 지도자의 죽음에 북한이 이처럼 주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여기에는 보다 뿌리 깊은 역사적 경위가 있었다.

전후 재일조선인 운동의 태동과 전개는 도쿠다의 노선과 사실상 일체화되어 있었다. 재일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1931년 코민테른으로부터 ‘일국일당’의 원칙이 발표된 후로, 일본공산당 당원으로서 천황제 폐지를 목표로 하면서 공동으로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김일성이 중국공산당에 당적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책임비서로서 재일조선인운동을 일본공산당에 합류시킨 대표적인 인물은 김천해였다. 1945년 10월 10일 김천해는 후추 형무소에서 도쿠다와 함께 석방되었다. 석방당시 형무소 앞 철문에는 8백여 명이 운집해 있었다. 그 중 일본인은 백여 명, 나머지 두 조선인들이었다. 동월 19일 오사카에서 열린 출옥동지환영인민대회에서 도쿠다는 연설을 마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정부만세, 일본인민공화정부만세”를 삼창했다. 그리고 11월 20일 일본공산당 제1회 전국협의회가 있기 한 달 전에 재일본조선인총련맹(이하 조련)이 결성되었다. 일본공산당의 재건에서 그 조직적 기반이 사실상 조련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坪井豊吉 1959, 82-83; 朴慶植 1989, 88-102).

조련은 1949년 9월 8일에 그 산하단체인 재일본조선민주처연동맹(이하 민청)과 더불어 강제 해산되었다. 조련의 해산에 의해 김천해는 한덕수 등과 더불어 추방처분을 받았다. 김천해의 추방은 당연한



것이였다. 일본공산당 재건대회인 제4회 대회결정으로 선임된 7명의 중앙위원에 김천해가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설치된 중앙위원회의 전문부서 조선인부의 수장으로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조련의 해산과 김천해의 추방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레드퍼지와 도쿠다의 운명을 예견하는 것이였다. 다음해인 1950년 6월에 일본공산당 간부에 대한 추방명령이 내려지자, 김천해 또한 도쿄를 탈출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북한이였다. 탈출 후, 김천해는 북한의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의장단의 일원이 되어, 북한의 대일정책의 창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朴正鎭 2012, 49-51).

김천해와 도쿠다가 일본을 탈출한 후,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선인 운동 간에 노선상의 불일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개전 3일 후인 1950년 6월 28일, 일본공산당 조선인부의 후신인 민족대책부는 독자적으로 조국방위중앙위원회를 비공식적으로 조직하고, 각 지역에 조국방위위원회(이하 조방위)와 그 행동대로서 조국방위대(이하 조방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한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하지만 당시 임시 중앙지도부는 1950년 9월 3일에 “재일조선인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명령문을 각 지방조직에 하달했다. 여기서는 그간의 한국전쟁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지령에서는 먼저 조선문제를 “일본혁명이 당면한 투쟁의 주요한 일환”으로 규정하고, 조선인 당원이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지점, 즉 일본에서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잊었을 경우,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었다(南基正 2000).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1951년 2월에 개최된 제 4 회 전국협의회에서였다. 동년 1월 1일 조방위가 “재일조선인운동의 당면투쟁방침”을 발표하고, 각 지역에 있어 조방대의 비합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조직하도록 지령을 내린 것을 사실상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공산당이 평화혁명론을 폐지하고 적극적인 무력투쟁을 큰 저항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도쿠다 손기관의 권위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일조선인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일본공산당의 노선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년 10월에 51년 강령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후, ‘피의 메이데이’ 등 가두투쟁에서 선두에 선 것도 다름 아닌 재일조선인들이였다. 12월 20일, 김천해는 평양방송을 통해 ‘가나가와, 고베, 나고야, 시가, 교토, 오사카 등에서의 영웅적인 투쟁’을 그 예로 들면서, “이러한 투쟁이 더욱 강화 발전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坪井豊吉 1959, 378). 51년 강령과 재일조선인들의 투쟁노선에 북한은 공개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쿠다의 손기관이 일본 국내의 지나치게 좌경화된 투쟁방식에 시정을 제시한 것은 1952년 7월을 전후 한 시점이였다. 손기관의 문제의식이 북한에 어떠한 경로로 전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재일조선인 운동은 이전과 달리 일본공산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운동노선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재일조선인 운동 진영 내에서는 이즈음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한덕수 계열의 ‘조국파’에서 비밀 ‘연락원’을 북한에 파견했다. 그 연락원이 김일성과 만나, 노선전환을 지시를 받은 것은 1952년 12월 2일 밤, 조선인민군총사령부내에 위치해 있던 ‘건지리’라는 곳이였다(건지리 담화). 당시 “광범위한 일본인민으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 앞으로 재일조선인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쟁해야만”하며, 나아가 “일본정부에 반대해 투쟁할 필요는 없다”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朴正鎭 2012, 60-61).

김일성은 건지리 담화가 있는 직후,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자필편지를 북경의 도쿠다 앞으로 보냈다. 이를 받은 도쿠다는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과 김일성의 편지를 동봉해, 중소 양 공산당 측에 보냈다. 김일성의 의견에 최초로 동의를 표한 것은 스탈린이었고, 그 후 모택동도 “김일성 동지가 제기한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회답했다. 그리고 도쿠다도 최종적으로 김일성의 의견에 동의했다(朴正鎭 2012, 62). 건



지리 담화가 있던 때가 1952년 12월 이었고, 스탈린이 사망한 시점은 다음해인 1953년 3월이었다. 따라서 김일성, 도쿠다, 스탈린, 모택동 사이에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그 시기는 1953년 1월부터 2월 사이가 된다. 다만, 도쿠다는 생전에 김일성에게 동의했다는 사향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1953년 10월 사망). 당시 김일성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천은 노사카에게 맡겨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쿠다와 노사카를 포함해 북경에 있던 일본공산당 지도부 중에, 이를 증언한 자는 없다.

V. 결론

도쿠다는 1945년부터 일본에서 최초의 합법 공산당의 당수였고, 1953년 사망하기까지 당수로서의 직함을 유지했다. 그는 일본공산당이 재건 될 당시부터 최고 리더십으로서의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었다. 1922년 일본공산당이 창립된 이래, 중책으로 활동하면서 35세에 투옥되었고, 출옥할 당시에는 52세였다. ‘옥중 18년’ 비전향이라는 경력으로 인해, 공산당 지지자로부터 이미 영웅시 되고 있었고, 옥중에서도 압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했었다. 도쿠다가 전전부터 일본공산당을 주도하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던 것은 “투쟁은 인민의 신뢰로부터”라는 문구였다. 이 문구를 실천할 만큼, 그에게는 패전과 점령이라는 격변기에 분출하는 대중의 요구를 조직하고 이끌만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도쿠다는 더 이상 비합법시대의 은폐된 지하운동의 리더가 아니었다. 도쿠다는 발군의 대중친화력까지 발휘했고, 의회에서도 보수정치인들을 압도하는 대중정치인으로서의 행동력과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도쿠다가 ‘수령’이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전후 혁신운동이 태동할 당시의 국면에 한정되었다. 이 국면이 지나가자, 운동의 실패에 대한 연대책임은 사망한 도쿠다에게 지워졌다. 도쿠다를 역사로부터 삭제하는 표상으로서, 일본공산당은 ‘가부장적 지도자’라는 낙인을 사용했다. 실제로 도쿠다는 당내에서는 ‘도쿠다 텐노’(徳田天皇)로 불릴 정도의 전제적인 통치방식을 보였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의 갈등과 대립, 즉 분파투쟁 속에 자신의 판단을 밀고 나갔다. 대외적으로도 통일전선 보다는 기층조직에서의 당 세포조직, 즉 프랙션 중심주의에 집착했다. 무엇보다 이토의 발탁과 그에 대한 편애가 낳은 지도부의 2인자 구도는 일본공산당 조직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도쿠다의 오명이 이토의 제명과 직결된 것은 이 점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다만, 강령 및 방침에 있어 이토가 특정한 발안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를 승인한 것은 다수의 지도부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도쿠다 개인에 대한 오명의 이면에는 가부장적 지도체제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정세와 일본공산당 지도부의 무능함이 있다.

사실 가부장주의와 전제주의적 통치방식은 혁명을 성공시킨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나타난 혁명 리더십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쿠다를 혁명카리스마로만 정의할 수 없는 일면이 존재한다. 도쿠다는 ‘강령’이 아니라 ‘대중’이 혁명을 불러일으킨다고 웅변했지만, 이는 전후 대중운동에 도쿠다 자신의 사상 이론이 투영된 흔적이 희미하다 점에 대한 합리화이기도 했다. 도쿠다의 카리스마에는 레닌이나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과 같이 독창적인 이데올로기 창시자로서 권위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진영의 권위에 대한 허약성으로 나타났다. 1947년 코민포름이 만들어지기는 했었지만, 이는 전전 코민테른과 달리, 일본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코민포름의 일본공산당 비판에 대한 도쿠다의 ‘격노’는 사실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도쿠다는 스스로 국제적 간섭에 휘말렸고, 당내 항쟁이 스탈린의 심판에 의해 저지되는 형국이 연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쿠다는 전전의 코민테른 시절부터 시종일관 국제주의에 충실한 공산주의가 되었고, 그의 소감과는 물론



국제파도 자생적, 또는 토착적 권위창출에 실패했다.

오키나와와 본토의 경계인으로 태어나, 반제국주의와 노동계급을 대표하던 도쿠다의 생애는 전후 일본의 모순들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런 모순들이 분출하던 전후 변혁의 시기에, 도쿠다의 카리스마는 혁명 리더십을 지향했다. 현재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점령기 일본이 사실상 혁명정세 하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대의 도쿠다는 과연 일본의 혁명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실천했던 것일까? 이 점은 사실 불분명하다. 도쿠다의 혁명 리더십이 미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의 리더십 하에 있던 일본공산당은 혁명적 전위와 진보적 대중정당의 모습을 오고 가면서 자기방향을 상실했다. 도쿠다 개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공산당의 운동 또한 미완이었던 것이다. 결국 도쿠다는 실패를 예정했던 전후 ‘혁명운동’의 오명을 대신 짊어지고 갔다. 그리고 도쿠다의 육체적 사망과 일본공산당사의 동시적 소거라는, 극적이고도 불행한 동시성은 많은 사실들을 미궁 속에 남겨두었다. 도쿠다와 재일조선인 운동, 그리고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실증의 과제들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과 한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교훈은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



주(註)

¹ (徳田球一 1986d). 도쿠다 사후, 그에 대한 회상록을 옴니버스식으로 엮은 논집으로는 (東洋書館 編 1955)을 들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도쿠다의 일생을 정리한 것으로는 (徳田球一顕彰記念事業期成会 編 2000)이 있다.

²² 가고시마는 지리적으로 일본의 남단에 해당하고, 오키나와를 통해 동지나 대륙과의 교역에도 유리한 곳이었다. 오키나와 무역에 종사하는 가고시마 상인은 가고시마의 본가의 처 외에, 오키나와에 현지처를 두는 습관이 있었다. 다른 현지처들과 달리, 모든 면에서 본처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 또한 입적시키는 것이 통례였다. 가고시마의 처는 가사를 담당하지만, 오키나와의 처는 남편의 부재 중 오키나와 지점의 경영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지처가 아닌 오키나와 처라는 호칭이 붙여졌다(徳田球一 1948, 29)

³ 도쿠다는 출옥 당일, 히비야의 GHQ 앞에서 “맥아더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쿠다 등의 출옥자들은 후추 형무소를 나오자마자 헌병대에 이끌려 나가노 중학교로 연행되었고, 실제로 맥아더 만세를 외친 것은 1945 년 10 월 19 일, 오사카에서 출옥동지환영인민대회에서였다.

⁴ GHQ 의 초기 점령정책에 대해서는 (타케마에 에이지, 2011)을 참조바람.

⁵ 서기국은 사업집행을 지휘하는 최고기관으로, 이 때문에 당수가 서기장이라는 직명을 가지게 된다.

⁶ 노사카의 귀국경위와 조선 경유과정에서 있었던 김일성과의 대담과 관련해서는 (和田春樹 1996)을 참조 바람.

⁷ 노사카를 맞이하기 위해 당 본부에서 시가를 파견하기 직전, 도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걱정할 것 없어. 3 분이면 이야기가 정리될 거야. 노사카는 일본을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杉森久英 1964, 216).

⁸ ‘도큐’(徳球: とっきゅう)는 도쿠다 큐이치의 약어(略語)이자, 그의 빠른 언술과 행동력을 비유하는 특급열차의 ‘특급’(特級: とっきゅう)을 의미하기도 한다.

⁹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후일 이토 당내 스파이로 지목받는데 결정적 증거가 된다(杉森久英 1964, 223).

¹⁰ 1949 년 중의원 총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자유당 264 석, 민주당 68 석, 사회당 49 석, 공산당 35 석, 노동당 7 석(이시카와 마스미 2006, 275).

¹¹ 이 사실은 1964 년에 일본과 소련공산당 사이에 공개논쟁이 이루어질 당시, 소련 측의 동년 4 월 18 일 자 서간에서 드러났다(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編 1988, 143-145).

¹² 그 외 니시자와 외 2 인의 근무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약 20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파로서 동참했던 하카마타 사토미는 모스크바에 연락책으로 잔류했다(伊藤律 1993).

¹³ “도쿠다 큐이찌 동지” (<로동신문> 1955/08/10); “도쿠다 큐이찌의 유해 이송과 관련하여” (<로동신문> 1955/08/12); “고 도쿠다 큐이찌 동지의 추모회 도쿄에서 거행” (<로동신문> 1955/08/13); “고 도쿠다 큐이찌 동지의 유해 도쿄에 도착” (<로동신문> 1955/09/21); “도쿠다 큐이찌 동지의 추도식 도쿄에서 거행” (<로동신문> 1955/10/01).

¹⁴ “도쿠다 큐이찌 동지” (<로동신문> 1955/08/10).



참고문헌

- 이시카와 마스미. 박정진 역. 2006. 《일본 전후 정치사》. 후마니타스.
- 타케마에 에이지. 송병권 역. 2011. 《GHQ: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평사리.
- 徳田球一. 1948. 《わが思い出》. 東京書院.
- 日本共産党東京都委員会教育委員会. 1952. 《日本共産党党性高揚文献》. 駒台社.
- 東洋書館 編. 1955. 《回想の徳田球一》. 東洋書館.
- 坪井豊吉. 1959. “在日朝鮮人運動の概況” 〈法務研究報告書〉 46, 3.
- 杉森久英. 1964. 《徳田球一》. 文芸春秋新社.
- 西野辰吉. 1978. 《首領ードキュメント 徳田球一》. ダイアモンド社.
- 牧港篤三. 1980. 《沖縄自身との対話・徳田球一伝》. 沖縄タイムス社.
- 徳田球一. 1986a. 《徳田球一全集 第三巻: 大衆的前衛党の建設》. 五月書房.
- _____. 1986b. 《徳田球一全集 第四巻: 国会での闘争》. 五月書房.
- _____. 1986c. 《徳田球一全集 第五巻: 自伝》. 五月書房.
- _____. 1986d. 《徳田球一全集: 第1巻―第6巻》. 五月書房.
-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編. 1988. 《日本共産党の六十五年史 上》.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出版局.
- 朴慶植. 198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 伊藤律. 1993. 《伊藤律回想録: 北京幽閉二七年》. 文藝春秋社.
- 石橋湛山. 1994. 《湛山座談》. 岩波書店.
- 和田春樹. 1996. 《歴史としての野坂参三》. 平凡社.
- 吉田茂. 1998. 《回想十年 2》. 中央公論社.
- 南基正. 2000. “朝鮮戦争と日本: 基地国家 における戦争と平和”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論文.
- 徳田球一 顕彰記念事業期成会 編. 2000. 《記念誌・徳田球一》. 徳田球一顕彰記念事業期成会.
- 朴正鎮. 2012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封印された外交史》. 平凡社.
- 〈アカハタ〉
- 〈로동신문〉



필자약력

박정진_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동국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및 정치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2009년에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2000-2002), 도쿄대 총합문화연구과 특임연구원(2008-2009)을 역임했다. 최근 저술로는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 封印された外交史》(저서),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 : 脱植民地化編》(공저), “Japan’s Choice: Possibility of a Renewal of National Strategy and Political Reshuffle,” “동아시아 냉전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 일조협회의 결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일접근과 북송문제,” “도쿄도의 에스닉 정책과 재일조선인시책”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